

19세기 석학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제주추사관 10주년 특별전

추사 관련 4개 기관 공동기획
한·중교유 역사 절정기 조명
중국 국가미술관 전시작 중
추사 일생 걸친 대표작 뽑아

19세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석학인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서예사 뿐만 아니라 금석고증학, 경학, 불교, 회화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 추사는 55세가 되던 해인 1840년 윤상도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제주 유배길에 올라 약 9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추사체(秋史體)를 낳았고 국보로 지정된 '세한도(歲寒圖)'를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같은 추사의 삶과 학문, 예술 세계를 기리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추사유물전시관이 있던 자리에 2010년 5월 새롭게 문을 연 제주 추사관이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오랜 휴관을 끝내고 6월 4일 재개관과 동시에 시작되는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한국전'이다.



이번 전시는 제주추사관을 관리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순환)를 비롯 서울 예술의전당, 경기 과천 추사박물관, 충남 예산 추사기념관 등 국내 4개 추사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2020년 1년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과천 추사박물관, 예산군 추사기념관, 제주추사관에서 순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도 공동 협력을 통해 추사 선양사업과 학술 연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 전시에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 국가미술관에서 개최된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출품작 중에서 추사의 일생에 걸친 대표작품을 골라 약 40점을 선보인다. 한중교유 역사에서 최절정기로 통하는

19세기를 추사와 청조문인의 학예대화(學藝對話)로 조명하는 전시로 제주 유배시절 완성된 '세한도' 영인본, 대련 작품인 '인고·폐거(人苦·弊去)', 소동파상 '파공진상(坡公眞像)', 만년에 쓴 현판인 '단연죽로시옥(端研竹爐詩屋)', '문자반야(文字般若)' 등이 나온다.

추사는 24세에 연행(燕行)을 계기로 청조 학에게 거장인 78세 옹방강과 47세 완원을 만난 뒤 두 사람을 평생 스승으로 모셨고 북학의 핵심인 청대의 경학과 금석고증학을 조선에 도입해 역사와 서법 두 방면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며 '학예일치(學藝一致)'를 구축해갔다. 정통 유학자인 추사는 또한 유교는 물론 불교와 도교를 아우르며 학문과 사상을

서예술 하나에 모두 녹여냈다. 특히 제주 유배시기의 처절한 실존을 소동파를 사숙해 학예로 극복하면서 '해동통유(海東通儒)'의 면모를 완성시켰다. 해배(解配) 이후엔 '괴(怪)'의 미학을 골자로 하는 추사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예술이 극진한 경지에 이른 '유희삼매(遊藝三昧)'의 세계를 펼쳐놓는다.

전시는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약제로 운영되는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당 20명까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모든 입장객을 상대로 발열검사도 실시된다. 발열자와 유증상자, 마스크 미착용자는 통제한다. 문의 064)710-6803.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립찬관

<205>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좁네 골았저. "하르바지- 밧일 뎡겨왔수다. 밧일 하영 신 디양 돌림빙 따문 문덜 일 안 하겐 하영부난 야단이라마쑈." 하르바지 골멘. "삼춘네 밧일이 하긴 하저. 경흔디 느도 느량 도웨추진 못 흘 테주이. 경하영도 어뎡하느나 일도 하영 돌림빙도 이겨내고 하영사주." 으뎡이 골멘. "누님- 모덜 썬뿌리는 일은 어뎡 뎡데강? 이젠 밧 일 가지 말양 집이서 세간사리 손보는 게 좋지 안하쿠과?" 하르바지 골멘. "돌림빙 따문 문덜 속았저. 몸 생각도 하솔 하영 일도 하영사 흡직하다."

* 제주어 풀이

*밧일 뎡겨왔수다 : 밧일 다녀왔어요.
*신 디(신디, 이신디, 이신디) : <억은말>있는 데. 있는 곳.
*하영 신 디양 : 많이 있는데요.
*문덜 일 안 하겐 : 모두들 일 못하겠다고.
*밧일이 하긴 하저 : 밧 일이 많긴 하네. *경흔디 : 그런데.
*느도 느량 : 너도 늘상. *도웨진 못하근게게 : 돌진 못 하겠네.
*경하추만 : 그렇지만. *이기쟁 하영사 하난 : 이기려 하니.
*어뎡 뎡데강? : 어떻게 되었어요? *얏으쿠강? : 얏겠어요?
*문덜 속았저 : 모두들 고생하네.
*일도 하곡 하영서사 켜겨 : 일도 하면서 해야 되겠네.

-부호- / <이름>이름씨(명사) / <그림>그림씨(형용사) / <음적>음적씨(동사) / <어제>어제씨(부사) / <대어름>대어름씨(대명사) / <썬>썬씨(수사) / <스킵>스킵씨(감탄사) / <도>도씨(조사) / <때소>때가림소 / <억은말>억은말 / <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한민국사진대전 제주 조영희 '대상'

올해 38회째 1878점 응모
중국서 촬영 '... 꿈의 무용'
"제주사진 역사에 큰 경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한 제38회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제주 조영희 사진가가 '천년아리랑, 꿈의 무용'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조영희 사진가

이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총 1878점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대한민국에 술인센터에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 구성된 9인의 심사위원들

이 심사를 벌여 이 중에서 대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37점, 입선 336점 등 총 376점을 입상작으로 가려냈다.

대상작인 '천년아리랑, 꿈의 무용'은 그동안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조 작가가 그곳에서 아리랑 공연을 접하고 수차례 촬영 기회를 가진 끝에 운명처럼 탄생한 작품이다. 조영희 사진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협의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중앙이사를 지냈다.

이번 사진대전에는 대상 외에도 제주 사진가 중에서 박해섭의 '입수'가 특선에 뽑혔다. 이창훈의 '세월', 황영훈의 '눈오는 날', 고원하의 '붉은 노을', 윤석순의 '작업1', 장택호의 '제주해녀의 삶1'은 입선작에 올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회장 이창훈)는 이같은 입상 결



대상작 '천년아리랑, 꿈의 무용'.

과에 대해 "국내 최대의 공모전으로 가장 공신력 있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제주지역 작가가 대상을 수상한 일은 광복을 전후로 태동한 제주지역 사진활동 역사에서 처음 있는 경사"라며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작가들의 풍부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시상식은 6월 24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선회기자

농협 메세나로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극단 가람이 2020년 메세나매칭그란 트사업으로 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각색·연출 이상웅)를 공연한다.

'이수일과 심순애'는 극단 가람이 2009년 1월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 사업 대한민국 연극 페레이드에 초청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이달 30일 오후 4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고가영(심순애), 이승준(이수일), 조성진(김중배)이 주연을 맡았다.

이상웅 가람 대표는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호흡하며 무대를 만들어가는 연극의 매력을 살려 코로나19로 지친 제주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람료 무료. 문의 722-0794. 전선회기자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제주 도정

한화 Q-CELL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해주세요.

Q

제주도 로컬 태양광 강소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3년 연속 선정

2020년 5월 29일까지 설치 신청 고객 모집 중!

3kW 설치 자부담금 220만5천원 + 하자보증 8년 + 48시간내 A/S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 신상품 출시! 하자 이행 기간 5년

SMP와 REC 판매가격 하락 추세로 사업이 고민되시는 신규 사업주님들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기본형

고급형

프리미엄형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1kW 시공단가 117만원 부터~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나눔에너지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745-0420 FAX 070-8812-0420